

복음과 문화를 번역하라

C. S. 루이스 안내서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C. S. 루이스와 기독교 세계로,
캐스린 린즈록 저 | 홍종락 역 | 홍성사

또 하나의 탁월한 저술 전략

지금까지 유명인을 소개하는 저서는 '전기가 주류였다. 전기는 탄생부터 성장, 활동, 그리고 별세하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생애 위주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한다면 '생애와 사상'(Life & Works)의 관점에서 대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가정과 성장, 교육을 배경으로 하여 어떻게 사상을 전개해 나갔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 사상가, 정치가 등에 관해 안내하는 저술 방식으로 고전에 속한다.

그런데 K. 린즈록의 저서 『C. S. 루이스와 기독교 세계로』는 다르다. 그는 루이스 내면 신층에 호르고 있는 주제들을 선별하여 전체를 현실, 운명, 신비, 인격, 문화의 5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부문을 세분하여 16개의 테마로 구별했다. 이런 기술 방법은 생애, 사상, 저서 등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갖추지 않으면 집필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루이스의 매너리즘을 제외한 저자는 루이스와 독자를 연결하기 위해 어렵지만 보람된 저술 전략을 선택했다. 덕분에 우리는 루이스의 삶과 활동, 그리고 그의 저서들에 깃들어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크로싱(crossing)하면서 마치 『루이스 저술 사전을 대하는 듯한 유익을 얻게 된다. 저자는 또한 자상하게도 각 장의 끝부분에 '더 읽을 자료를 첨부하여 루이스 저서에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린즈록은 생전의 루이스를 개인적으로 만난 경력이 있어, 보다 신빙성 있게 원 저자의 속뜻을 전달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과 상상력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무엇을 추구했던 것일까? 명예 신하바서를 받은 친하바서가 동화(『나니아 연대기』)와 우주공상적 환상소설(『페렐란드라』, 3부작)을 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대학에서 학술적인 강연을 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신앙적 권면을 하면서 시(『다미어』)를 쓰고, 소설(『순례자의 귀향』)을 쓰고, 에세이(『고통의 문제』, 『사랑의 알레고리』, 『인간의 폐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악마를 미워하면서도 악미의 입장에서 현대 신앙인을 유혹하는 페터(『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글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과 상상력의 결혼을 꿈꾸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특이한 수비(數比)적 인생 전력을 보인다. 9:23:23:9가 그것이다. 9세에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경험적 무신론에 빠져 23년 동안 신앙에 대한 회의와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가 31세 즈음에 회심하고, 이때부터 23년간 기독교 저술가로 왕성하게 활동한다. 그리고 마지막 9년은 뒤늦게 찾아온 사랑, 조이 그래섬을 아내로 맞으며 행복하게 사는 듯했거나 암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자신도 성인병 합병증으로 뒤를 따라간다.

저자 린즈록은 루이스의 생애와 인간 관계, 저술을 통해 그의 사상에서 사소한 이야기에 이르러까지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글로 담길 수 없는 부분까지 소개했다. 이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저자는 루이스의 다음 글을 인용한다. “자기 집 뒤뜰에서 늘 새로운 면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달에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p. 79-80) 이성의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을 이상과 논리로 주장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에게 감동시키려면 감성이 필요하다.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제법 견고하다고 보았다. 그는 불새를 노래 “불신자들은 지성과 감성 두 가지로 공략할 수 있다.”(p. 305)고 보았고 “지성적 복음전도”를 위해 상상력을 선택했다(p. 305).

복음과 문화의 번역자

린즈록은 루이스를 제대로 간파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한다. “루이스는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독교 교리를 번역하는 임무를 자임했다.”(p. 306) 그는 당대 성직자들의 주석이나 구홍사들이 늘어놓는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현상을 읽고 스스로 복음의 번역가가 되고자 한 것이다.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가 그곳의 언어를 배워야 하듯,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동시대의 언어, 즉 문화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간파했다. “우리는 복음의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우리 시대의 현대어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책임이 있다.”(p. 307) 루이스의 저술 작업, 즉 장르를 बना드는 전방위적 글쓰기, 동화, 소설, 판타지, 에세이, 강연, 방송, 편지쓰기 등은 모두 복음을 문화로 번역하는 승고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린즈록은 루이스를 저술 전체에서 인용하고 있어 짧은 지면에 간단히 소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루이스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갖기 쉬운 허튼 자세에 권면을 하기도 하고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는 1963년 하늘나라로 갔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루이스의 작품이 유효한 이유를 자상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책은 더 없이 좋은 루이스 안내서이자 신앙길잡이라 할 수 있다.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학, 기독교 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학과 신학을 공부했다(Ph.D.). 문화와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상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화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짐을 꿈꾸는 기독교 문화운동가이다.